

신안 내년도 국고 반영 행정력 결집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사업 예산 확보 쾌거

천사대교 개통·관광지 개발로 활성화 전인

신안군이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확보에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고 7,2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박우량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잇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찾아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사업' 3,827억원과 '암태 신석·단교

국도개선사업' 58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은 지난 2011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신안군은 1004의 섬들을 잇는 천사대교 개통 효과와 독특한 도서의 맛과 맛을 연계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관광지 개발로 지역 활성화를 견인한 것은 물론 체계적인 개발전략에 이은 여건 변화로 이번 타당성 확보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신안군은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과 암태 신석·단교 국도 개선의 착공을 서둘러 비금·도초권역의 육상교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흑산·홍도권역의 해상거리도 단축해 1,000만 관광객 시대의 선제적 대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전남도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신안군의 입장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달 중순 이후 국토교통부의 500억 미만 사업과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또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813억원의 국고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 77호선(신장·북룡) 시설개량사업 170억원 ▲암해·송공 국도2호선 시설개량 6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 81억원 ▲흑산도항 개발사업 155억원 ▲신안 경찰서 신축 160억원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건립 22억원 ▲암해·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429원 등이다.

젊은 청년들의 귀어 유입 증대를 위해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한 어선구입 임대사업비 15억원도 정부안에 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고립 문제를 해



신안군이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박우량 군수와 관계공무원 등이 잇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찾아 국고 건의 면담을 실시했다. /신안군 제공

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과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고 확

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올 추석 수석간식 맛보세요"

영암지역자활센터 생산·판매

영암군이 추석을 앞두고 영암지역자활센터가 생산하는 상품 판매 및 홍보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 스스로 자립 및 탈빈곤 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하는 곳으로 이번 추석을 맞아 자활센터가 추석선물세트로 누룽지, 눈꽃부각, 타래과 3종을 만들어 개당 3,500원, 세트 1만8,000원에 특별 할인 판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자활사업에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자활생산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추석을 맞아 영암지역자활센터가 추석선물세트로 누룽지, 눈꽃부각, 타래과 등을 만들고 있다. /영암군 제공

강진, 호우피해 복구 총력 나선다

추경 425억 편성...가용재원 최대 투입

강진군이 425억 증액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군의회에 제출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의 2차 추경으로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호우피해 항구복구 및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이 반영됐다.

추경 편성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80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8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16억 원(특별교부세 13억 원 포함) ▲대구저지지구 관광 편의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8억 5,000만원 등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피해 복구 지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했다"며 "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예산안이 확정되면 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 및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생명사랑 챌린지' 동참

경연대회서 장려상 수상도

진도군이 오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사랑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에 실시된 챌린지는 병의원, 약국, 경로당을 대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주제로 열렸으며, 주위의 우울증·자살고위험군 발견시 보건소로 연계해 주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또 군민들과 함께하는마을중심 생명사랑 챌린지를 위해 군내면 둔전마을 주민

들이 참여해 '생명 존중 의미 전달'을 위한 동영상도 함께 제작했다.

제작된 영상은 전남도와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2021년 생명사랑 챌린지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며 "생명사랑 챌린지가 지역에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목포으뜸맛집 참여 업소 모집

내달 5일까지 접수

목포시가 2022년 목포으뜸맛집 선정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시는 목포 맛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브랜드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현재 총 137개소의 으뜸맛집을 선정·관리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 중 맛의 도시에 걸맞는 음식문화

조성을 선도할 업소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전국 10개 이상, 전라권 5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소는 사업취지상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업소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대표메뉴와 업소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목포시청 관광과(061-270-8635)로 제출하면 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영암 서호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선정

영암군 서호면이 청정전남 으뜸마을을 만들기사업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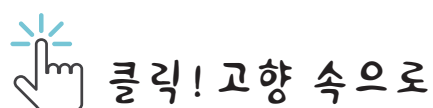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서호면은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4개 마을(아천·양동·엄길·금강마을) 추진반과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상 마을은 경관 개선과 환경정화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 한단계 한단계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갈 사례를 공유하며 내년

2차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추진반장들은 사업의 원년에 으뜸마을로 선정된 만큼 마을 곳곳에 은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차기 으뜸마을에도 노후우물 전수할 것을 논의했다.

노명환 서호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음을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정성현 무안 이장협의회장, 생필품 기탁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 정성현 무안군 이장협의회장에게 관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정성현 회장은 그동안 무안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농산물 기부를 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기부된 생필품은 무안군사

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프로그램과 연계한 추석맞이 나눔사업을 통해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나민희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소중한 기부를 해 주신 정성현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물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신안 팔금면 노인회, 환경정화 활동

신안군 팔금면 노인회는 최근 마을노인회장 등 20명이 참여해 '깨끗한 농촌 만들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홀로 계신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쌀 20kg을 15kg에 각각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팔금면 노인회는 매월 두 차례씩 환

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깨끗하고 아름다운 1004섬 신안가꾸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명렬 팔금면장은 "마을 노인회장님들께서 솔선수범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고맙다"며 "소외된 이웃 살피기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경찰, 신안군의회서 치안 설명회

목포경찰서는 7일 신안군의회를 방문해 2022년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치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혁성 신안군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유인도서의 28.9%를 보유하고 있는 목포시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도서 특별 치안대책을 설명했다.

신안군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임에 따라 노인 범죄 불안 환경 해소를 위해 불법지역 방범용 CCTV 설치와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CCTV 설치, 로고젝터 설치 등 환경개선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안군의회와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목포=김동균 기자